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7. 24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원예작물과장	강상훈	☎ 760-7450
		업무담당자	송민아	☎ 760-7454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브로콜리 종자 국산화 속도… '삼다그린' 보급 확대

- 제주 월동재배에 적합한 국산 브로콜리 품종 보급으로 종자 수입 의존도 완화 -

❑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자체 육성한 월동 브로콜리 신품종 '삼다그린' 보급 확대를 통해 브로콜리 종자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한다.**

❑ **제주 브로콜리는 전국 재배면적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특화작목이다.**

○ 그러나 겨울철 재배에 적합한 국산 품종이 부족해 종자의 99%를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, 연간 약 20억 원에 이르는 종자 구입비가 농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.

○ 이에 농업기술원은 해외 종자 의존도를 낮추고 제주 월동재배에 적합한 국산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만생종 '삼다그린'을 육성했다.

❑ **'삼다그린'은 농가 실증시험에서 주요 병해인 검은무늬병에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. 또한 꽃봉오리(구)의 형태가 우수하고 단단해 상품성이 높으며, 겨울철 저온에도 생육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.**

○ 이에 품종의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종자 생산판매 통상실시권을 종묘업체에 이전했으며, 2025년 재배면적은 65.1ha에 이르렀다.

○ '삼다그린' 종자는 기존 수입 품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

지역농협과 종자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 농가의 종자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
○ 농업기술원은 만생종인 ‘삼다그린’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,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조생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수입 종자 의존도를 낮추고 로열티 부담을 줄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❑ **이광주 채소연구팀장은 “‘삼다그린’은 제주의 월동 재배환경에 맞춰 개발된 품종으로 병해에 강하고 품질이 우수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제주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품종을 개발·보급해 브로콜리 안정 생산에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**